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호 [루게 제 24416호] 주제 103 (2014)년 1월 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선군조선의 기적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최단기간에 일떠세운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위훈

조국청사에 건설의 최전성기로 길이 빛날 력사적인 주제 102(2013)년이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는 때에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개장이 진행되어 온 나라를 끝없는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마식령지구의 명당자리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이 훌륭히 꾸려졌으로써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이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가 마련되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도 떠돌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의 영웅적인건설자들이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는 방대한 스키장건설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속도인 《마식령속도》가 창조되었다.

《마식령속도》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강성국가건설속도로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기준, 전진속도를 규정해주고 년대를 이어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당의 부름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군인건설자들은 고결한 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그 수와 연장성이 있어서 세계적인 10개의 스키장과 산골짜기에 어울리는 호텔과 스키보사 및 숙소건물, 여러 로선의 사도와 눈포송시설을 포함한 방대한 규모의 스키장건설을 빠른 기간에 끝내는 혁명적인 위훈을 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애국의 호소문에 화답하여 천연산지에 거대한 스키장건설한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위훈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시대의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백두산혁명군인의 비장한 혁명적의지와 실천력을 온 세상에 파시한 력사의 기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은 우리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최단기간에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연조건투쟁이다.

총부지명적이 1,400여정보에 달하는 방대한 명령에서 벌어진 스키장건설은 우리 나라에서 한해 강수량이 가장 많은 동해안지구의 해양성기후와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대의 불리한 공사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등 많은 난관을 동반하였다.

스키주르가 시작되는 대화봉정점에서 골짜기의 결속지점까지 수직높이차는 수백m

로서 주르형성에 현대적인 기계수단을 리용하기가 어려웠다.

산세협한 지형에 형성해야 할 스키주르들의 길이는 평균 1,700m, 최고 5,000m이상이었다. 하나의 스키주르를 닦으려면 평균 2만여㎡에 달하는 방대한 흙과 암반을 처리해야 하였다.

대화봉정점에 일떠서는 휴식장까지 닦아야 할 도로길이는 4천 수백m에 달했으며 이 구간에 크고작은 굽이는 120여개, 최고경사도는 22%나 되었다.

스키장지구에 일떠세울 건축물공사도 방대하였다. 결속지점주변에 있는 호텔과 숙소, 지하주차장과 종합원삼림집, 대화봉의 휴식장을 포함한 규모가 큰 건물들의 연건축면적만 하여도 5만여㎡에 달하였다.

이밖에도 30여개의 보조건물과 곳곳에 형성해야 할 40여개의 각종 시설물중에는 지수능력이 큰 눈포송저수지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사량이 그처럼 방대한 스키장건설을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며 기수인 인민군대에서 맡아하도록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인민군대에 통째로 맡겨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에는 당정책에 대한 절대불변의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인 영웅적장병들만이 그처럼 방대하고 전례없는 대건설투쟁을 최단기간에 해제될 수 있다는 크나큰 기세가 담겨져있었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전역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그들은 세계적인 스키장을 단숨에 일떠세울 기세로 배낭을 벗어놓고 바쁘게 착공의 첫발을 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방대한 건설을 전격적으로, 립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주도세밀하게 세우고 공사과제를 대상별, 단계별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 10개의 스키주르타기는 주타격전선이었다.

한적하던 산밭들에서 천연암반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막돌과 흙이 담긴 마대를 메고 달리는 전투원들속에 군관과 병사가 따로 없었다. 백병전을 방불케 한 나날에 한 교대에 10회이상의 발파가 진행되었다.

자재로 만든 수백개의 썰매발구를 리용하여 부대별로 매일 1,000여㎡씩의 흙과 막돌을 처리하였다. 결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화봉의 산밭들에 스키주르들이 뿔어내렸다.

감격도 새로운 지난해 5월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마식령스키장건설성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수십만㎡의 면적에 초중급스키주르와 고급스키주르들을 닦아놓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이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손수 한자한자 쓰신 력사적인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보내주신 애국의 호소문은 인민군장병들이 스키장건설을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내밀어 완공의 날을 앞당겨올수 있게 한 위훈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은 건설장에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제시된 총공격전, 총결사전의 구호를 승리의 포대, 위훈의 기치로 빛내여갈 불변의 의지가 불어넣었다.

군인건설자들은 전화의 나날에 불타는 고지의 영웅전사들처럼 피끓는 심장의 결의를 담은 명세문에 자기들의 이름을 한자한자 새기었다.

화신정적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졌다. 지휘관들은 시간과 장소가 따로없이 싸우는 군대만이 나게 화신정적사업의 도수를 높였다.

조선인민군 서극속부대의 정치일꾼들은 모든 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령군사규범에 전진의 속도를 맞추도록 방송선전차와 지휘용승용차에 전투속도와 경정도표판을 싣고 현장을 오가며 전투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서로 다른 형식의 기동에출진동원들이 지하주차장과 지상건물내부에서, 해발고도가 높은 산정에서 벌어졌다. 전투의 여가시간에 진행된 폴리리합투와 방송선동경연, 소모 및 시작품창작경연과 운변경연도 활기를 띠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애국의 호소에 즉시 호응해나선 총진격의 퇴성은 모든 공사장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높이선 일정목표수행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전반적인 공사속도가 1.6배, 최고 2배이상 올랐다.

군인건설자들은 당이 반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혁명군대의 기상을 떨치며 영웅적투쟁을 벌여 지난해 6월말까지 마식령지구의 모든 스키주르타기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스키주르타기가 결속됨에 따라 큰 규모의 휴식장과 다리를, 각종 시설물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대화봉휴식장공사는 스키장의 전반건설속도를 좌우하는 주타격대상이었다.

해발 1,360여m에 달하는 대화봉에서 불리한 지형 및 기후조건을 극복하면서 발붙이지조차 힘든 봉우리에 휴식장터전을 닦기 위한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수송차와 공사설비였다. 병력의 가파로운 구간들에 자동차운전자들을 고무추동하는 글발들이 수없이 나돌았다. 조선인민군 오후주수속부대의 중량급화물자동차운전자들은 골짜기에서부터 대화봉까지 왕복 200리길을 하루 8회이상

오가면서 도합 수천의 물동을 지체없이 실어날랐다.

지난해 7월, 쏟아져내리는 폭우로 하여 자동차가 경사급한 경길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되자 온 공사장의 군인건설자들은 대화봉에로의 골짜운반전투에 펼쳐나섰다. 방송선전차 방송원들과 간호원들, 건설장에 달려와 작시일을 맡아하던 군인가족들도 운반대에 뛰어 들었다.

이날 마식령의 결사관철투사들은 비탈진 산밭을 타고 단 2시간동안에 120여㎡의 골짜를 운반하여 대화봉의 휴식장건설을 중단없이 추진하였다.

한편 휴식장시공을 맡은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명마루에 제재기와 철근가공장을 차려놓고 30여개의 건물기동공크리치기를 20여일만에 끝내고 공사상과를 계속 확대하였다. 휴식장건설기간 연 8,000여대의 버림목과 10여의 철근, 80여의 공사용물을 운반하면서 돌격전을 벌였다. 연건축면적이 1,700㎡인 휴식장건설의 나날에 대화봉의 해발고는 무려 8m나 낮아졌다.

포성없는 격전은 스키주르에 인공눈을 형성하는데 리용된 눈포송저수지들과 연장 길이가 1만 2,000m나 되는 눈포판로 굴착전투장에서도 파란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은 립잡한 도로도 없는 저수지건설장까지의 500여m나 되는 비탈길주변에 신념의 표어들을 새겨넣고 드센 함마력으로 저수지바닥과 호안정리를 위한 3,000여㎡의 토랑처리와 수백㎡의 돌쌓기를 립체적으로 벌려 2개월동안에 해야 할 공사과제를 보름이상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해발고도는 산정에서 휴식장과 눈포송저수지공사가 적극 추진될 때 산밭에서는 공공건물과 각종 시설물, 지대정리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호텔 및 숙소건설을 맡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100여리밖에서 세멘트와 골재를 비롯한 자재를 짐수송하면서 연건축면적이 2만㎡가 넘는 10층이상의 호텔건물을 평균 이틀에 한층, 최고 30여시간에 한층씩 쌓아올렸다. 골조공사를 예정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끝낸 이들은 외부미장도 10여일동안에 결속하는 혁신의 개가를 울리었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3개월은 실히 걸려야 할 드넓은 지하주차장의 총막공크리치기를 보름동안에, 다리공사는 단 4일동안에 추진하였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아지형공법을 적용하여 200m 구간의 암거공사를 20일동안에 해제했다.

선군시대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로 내달린 군인건설자들에 의해 마식령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6월사이 20여개의 건물골조공사가 완공되고 7월말에는

60여개의 건물 및 시설물들이 자재를 드러내놓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마식령지구에서의 건설성과는 속도일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진동식모래제와 이동식혼합기, 진동다짐기를 비롯한 21종에 210여점의 건설기계와 합리적인 지구 및 기공구를 만들어 공사에 리용한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를 비롯하여 모든 시공단위들에서는 최를 고정지주와 흐름식혼합물운반기 등 많은 건설기술수단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보존, 만년담보의 창조물로 완성하였다.

호텔과 스키보사 및 숙소건물을 비롯한 큰 규모의 스키경기 및 운영시설들이 산밭환경과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특색있게 꾸려졌다.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에 들어와 눈이 많이 온 불리한 조건에서도 대형썰매, 중소형 썰매들을 수십개나 만들어 중량이 천수백t이나 되는 사도설비들을 불도젤로 끌어올림으로써 긴장한 조립기일을 보장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직송기착륙장과 스케트보사건물, 스키주르감시소와 길이 600여m로부터 2,000m에 달하는 여러 로선의 사도와 눈포시설공사도 완공되어 세계적인 스키장으로서의 체도가 훌륭히 갖추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온 나라 인민들의 성의있는 원호는 《마식령속도》창조투쟁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마식령지구의 천지개벽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명운에 사회주의 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고결한 헌신의 세계가 안아온 결실이다.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됨으로써 사회주의 문명국을 향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리상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고 세인을 놀라우게 하는 내 조국의 기상이 어떻게 나래치고있는가를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마식령스키장은 규모가 큰 단순한 대상 건설이 아니었다. 미세를 비롯한 원수들의 온갖 도전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지난해 정초부터 전평도 10여년만에 조성되었다.

적자가 총부리를 겨눈 최전선도 아닌 마식령지구에서 울린 스키장건설의 장엄한 포성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리상과 담력이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파시한 또 하나의 장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세협한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군인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공사를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동안 마식령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커다란 고무도 안겨

주시고 스키장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하여 통장훈을 불러야 한다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보고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배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 완공을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인민군대에 의하여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과요, 그들이 세운 위훈은 부강조국건설력사에 길이 남을것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지구를 찾으신 때마다 모든 건설대상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고 선 편리성, 후 미화성의 원칙에서 손색없이 꾸러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어 설계의 표준, 시공의 본보기로 되게 해주시였다.

마식령스키장이 웅건한 자재를 드러냈을 때는 마음껏 주르를 지척내리며 웃고 떠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호쾌해진다 하시면서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이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와 스케트, 썰매도 타면서 겨울철야영을 할수 있게 수백명규모의 숙소 및 봉사시설을 더 건설할때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령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군인건설자들의 의해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은 그처럼 력사에 류례없는 빠른 속도로 손색없이 완공될수 있었다.

인민군대를 《마식령속도》창조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군인건설자들은 세계적인 스키장을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다.

오랜 세월 새소리와 물소리만이 들리던 마식령지구에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거창한 창조물이 일떠세움으로써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칠명이 있고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강원방의 마식령은 무궁명영하는 김정은시대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력사의 봉우리로 빛나게 되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은 마식령스키장의 완공과 더불어 로동당시대 건설의 최전성기를 빛내인 크나큰 공지에 넘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땅에서 모든 꿈이 현실로 펼쳐질 조국번영의 패일을 더욱 확신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의 완공으로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나는 지난해를 더욱 뜻깊게 장식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띠이 펼쳐나가기 위한 공격전에 드센 박차를 가하여 변명하는 사회주의문명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지원철



세계일류급으로 훌륭히 일떠선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 마식령스키장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난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청 춘 조 국 송 가

축복받은 선조조국의 대지 위에 세계의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내고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도 가슴 들끓는 이 뜻깊은 시각 우리 모두는 함흥성공화국기 창공에 펄펄 휘날리는 내 조국의 존엄 높고 자랑스러운 위용을 삼가 우리른다.
너무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너무도 눈부시게 비약하는 우리 조국이다. 분명 그 땅, 그 하늘, 그 사람이지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며 매일은 무슨 사변이 일어나지 않는 창조자 하가 어렵게 젊어지고 솟구치는 내 조국이다.
평범한 연구사, 교원들을 하늘높이 떠올린 과학자지리, 교육자살림집들에서 새해를 맞는 격경과 흥분이 해빛같은 창문머리 뜨겁게 넘쳐난다. 현대적건축미를 자랑하는 문수물놀이장과 말발굽소리 경쾌한 최상수준의 미림음악극장 등 각종 체육문화시설들에서 젊음을 즐기며 뛰어올리는 방민적인 웃음소리가 한겨울의 추위마저 녹인다.
발걸음은 꽃따윈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요, 들는 소식마다 사회주의의 명령국을 구가하는 기쁨인데 설맞고름날에 이 하늘아래 눈부러 아득하게 펼쳐진 마시령스키장 개장식까지 펼쳐져 세상을 다시 한번 깜짝 놀래웠으니 이 아닌 기적인가.
말 그대로 약동하는 젊음이 하늘에 닿고 넘치는 힘과 기상으로 무겁게 일어서는 선군의 내 조국을 다름아닌 청춘조국이라고 오늘 우리는 당당히 말한다.
청춘이여, 너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청춘을 사랑하는가.
청춘을 불러 정의와 진리의 상징이라 한다. 청춘은 사나운 폭풍도 헤쳐는 용맹의 나래라고 노래한다.
그 어떤 광풍도 길들이고 온갖 유혹도 단호히 불살라버리는 자랑높은 기상은 청춘의 가슴에서 더욱 솟아올랐다.
사랑과 열정, 용감성과 패기가 피어온 가슴에 넘치며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왕성한 힘으로 천리 날바다도 단숨에 매우고 이룩한 산도 통째로 떠옮기는 무서운것없는 시절이 다름아닌 청춘이다.
미치지 못한 삶을 살고자 하고 안전한 생활을 중요하며 순간마다 새로운것을 열망하여 높이 날아오르는 그 자태는 얼마나 믿음직하고 아름다우나.
청춘은 아름답다 한다. 새벽노을처럼 붉고 순결무구하며 찬란한 리상과 기상으로 무한대한 미래를 펼쳐는 청춘,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오늘이 아니라 매일이

다. 잠을 자도 꿈을 꾸어도 오늘보다 더 좋은 매일을 그리며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위해 고난과 시련도 두려움없이 헤쳐간다.
청춘이 있어 세상이 달라지고 젊음이 있어 역사는 더욱 힘차게 발달한다.
바로 이런 젊음의 약동, 위엄만이 솟구치는 거대한 활력이 오늘 내 조국명을 떠받치고 이끌어가고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부듯한 긍지인가.
보라. 옛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다지만 한두해사이 10년, 100년을 주름잡고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루는 우리 나라이다.
우리 조국은 해를 두고 년차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 시간당으로, 초고속으로 우주속도로 시공간을 압축하며 다차원적으로 전진되고있으니 그 후과 심도를 과연 무엇으로 짚수 있겠는가.
참으로 수백수천년 땅속에서 폭년 용암의 분출인양 다지고 다져온 우리 힘의 총체가 무겁게 용을 쓰며 폭발하고 있다.
용솟음치는 젊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기세, 이런 열정을 뿜어낼수 있겠는가.
청춘의 순결한 낮과 지혜, 거대한 정열이 천만군민의 정신과 신념으로 승화되고 젊음이 발산하는 무한대한 힘이 강성국가 건설의 활력소로 되고있는 선군조선의 놀라운 비약에서 우리는 한없는 고무압과 격동의 정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한 영상을 삼가 우리른다.
아버지장군님을 찬탄투박에 잃고 피는 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을 그 넓은 가슴에 품어안시고 따뜻한 정과 산악같은 신념, 불굴의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건적이 어려웠던 크나큰 슬픔과 비애의 언덕에서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승영히 새겨진 우리의 최고영도자께서 지니신 젊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가를 지금 우리는 무한대한 격정속에 체험하고 있다.
그이의 불타는 젊음과 더불어 우리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장장 수십년세월 청춘의 기상과 넘으로 역사를 전진시키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온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맥맥히 이어졌다.
그대가 누구이든 우리 조국의 성스러운 대지 위에 새겨진 청춘이란 고귀한 이름앞에, 그 영광스러운 전통에 삼가 머리숙이자.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여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개척해오셨다.
당국의 비운이 삼천리강토우에 무겁게 드리웠던 수난의 그 세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역사의 시각과 함께 우리 수령님의 청춘시절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안도의 밀림속에서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실 때 당던 20세의 청년장군이시였음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된다. 수령님께서 애국애족의 넘고 청춘시절을 뜨겁게 불태우시며 항일의 전장에 서기신 피어린 자욱자욱을 떠받들러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 아침은 찬연히 밝아왔다.
이때의 압박밑에서 수난받는 식민지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너무도 젊으신 30대의 청년장군이심을 우리러버리게 된 우리 겨레는 사무치는 경모의 정을 누르지 못해 이렇게 심장으로 노래하였다.
...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된 새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명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
젊음에 눈취는 고귀한 심장으로 역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헤치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추동하여온 영광스러운 전통은 대를 이어 변함이 없었으니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벌써 혁명의 총대를 게우봉으로 넘겨받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안도의 수령님께서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시던 수령님처럼 젊음에 넘치시는 장군의 모습으로 선군령도의 첫 자국을 찍으셨다.
105땅조사단을 찾으시여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철석의 신념으로 우리 군대를 철두철미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백승을 펼쳐 불타는 선언을 하고서 어른들의 높고 험한 산밭을 타시며 백두산출렁명당의 위용을 펼친 그 역사의 화폭들이 우리 장군님의 청춘시절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이 땅에서 조선을 책임질 주인이 되리라

는 원대한 포부와 리상으로 젊음을 잃어시며 안락의 원수들에게 단호한 철주를 내리고 주체위업의 명맥을 쫓듯이 지켜내신 천출위업의 모습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잊지 못한다.
무로의 낚시터에서 무르익힌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키며 전당, 전군에 수령님의 유일 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신 역사적공적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청춘시절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다.
겨울을 모르는 당중앙장가의 밝은 불빛과 더불어 수많은 혁명전철을 아로새기신 아버지장군님의 열정에 넘치고 함께 이 땅에서는 로동당시대의 통성변영기가 펼쳐졌다.
참으로 청춘이라는 신성한 부름을 떼어놓고 우리 혁명의 개척과 전진, 승리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운 영웅들의 군상을 잠시 새겨보자.
...
그 앞잡이는 위대한 수령님을 총직하게 받들어 조선혁명의 련명기를 헤쳐온 1세대 청년혁명가들이 있다. 아직 년소하신 우리 수령님께 삼가 태양의 존함을 드리며 순결한 망심과 의리로 받들고 억연 드느니 않는 일심단결의 초석을 마련한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은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았던 새 세대 청춘들이었다.
이 땅에서 건강, 건국, 건군의 대업을 굳건히 떠맡은 기동들도 20대, 30대의 열혈청년들이고 가릴치 못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복속 기꺼이 비쳐 인민공화국의 영원무궁한 패일을 지켜낸 영웅전사들도 꽃이나 청춘들이었으며 우리 당의 선군위업을 제일선에서 믿음직하게 받들어온 총직한 영웅사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었다.
참으로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조선의 청춘이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루지도 광만도 없는 청춘은 천축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리상을 높이 세우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반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결심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교와 곁을 버려 가지고 이룩해내는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르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는 주인공

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것이다.》
그 출중한 인품과 기백도, 천리천인의 예지와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정도 항일전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과 빨찌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지니신 젊음이 그토록 위대한것은 그 열혈의 심장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품으시고 바쳐오셨던 뜨거운 사랑과 열정, 불같은 원신이 그대로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워주신 조국,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히 품어안아 지켜주시고 빛내주신 내 조국을 김정일애국주의의 승고한 뜻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가꾸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심장속에 품으신 순결한 정과 사랑을 고스란히 인민에게 부어주시며 인민들이 만복을 누리려 그날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치시고 불태우시는 우리 아버지이다.
지금 이 시각도 그이께서는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선군조국, 온 나라 인민이 세상 부러울것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회주의대화인, 인류의 제일리상함을 이 땅위에 일떠세우실 승고한 꿈을 안으시고 불철주야 강행군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데는 아니던가.
오늘 원수님께서 우리모두에게 안겨주시는 젊음속에는 새로운과 찬신함, 대담성과 열정, 창조와 혁신 이 모든것이 다 담겨있다.
김정은시대에는 모든것이 새롭고 그 수준은 세계 최상급으로 창조되고있다.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만족이란 없고 한계도 없다.
하여 그이께서는 하나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오도, 하나의 설계도를 보시고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기성 자재와 판넬, 타성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로운 식견으로 보시고 작정하시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도록 이끌어주시다.
오늘 이 땅위에 펼쳐지는 전면적인 문명개화기는 단숨에 지나온 년대들의 계속과 련속이 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도약이고 원수님시대의 폭발적분출이다. 젊음은 투철한 정의이고 무진막강한 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하여 원수들이 그

처럼 전철하고 두려워하는것도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그 젊음에 있다.
원수가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대면 대포를, 핵무기를 휘두르면 그보다 더한 핵억력력으로 원수들의 머리우에 단호한 철주를 내리고 조국통일위업의 역사적승리를 안아오려는것이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우리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백두의 천출위업들의 출중한 지략과 단력, 용맹과 배짱을 그대로 겸비하신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설자 이 세상에 없다.
뜻아오르는 아침의 태양과 같이 온 누리를 환히 밝히는 저 창공의 광채를 과연 누가 가리울수 있겠는가.
젊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오늘도 위대하지만 매일은 더 눈부실것이다.
조선이 낳은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청년장군 김정은원수님을 당할자 그 누구나, 우리에 대해 허쉬는 망상을 하는자들, 우리를 침노하려는 원수들이 혀여날수 없는 파멸적재난을 당하지 않았거든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의 힘과 기상을 똑바로 보고 경경담동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불타는 젊음속에 세상을 놀래우는 원수함이 있고 품고계신 만가지 아름다운 꿈속에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련자 김정은동지!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리상이 더욱 높아지고 승리의 신심이 백배해졌다. 뿌리가 든든하고 가지가 왕성하며 줄기차게 뻗어오르는 거목은 그 무성한 새 손과 함께 더욱 억세게 성장하기마련이다. 우리의 청춘조국도 바로 이런 거목과 같다. 준엄한 세월의 년대기들에 혁명시말들이 바친 고귀한 피가 스며있고 그들이 넘겨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발을 미래의 리상을 향해 더욱 높이 추켜들고 청춘의 열정과 힘으로 나뉘어있는 우리 조국이다. 희세의 천출 위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여 약속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나라, 창공에는 오각 별 빛나는 공화국기가 무궁도록 휘날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게 될 사랑하는 우리의 청춘조국! 이 애매적이고 역세며 자랑스러운 청춘조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 휘황찬란한 설계도따라 새해의 더 큰 승리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김 성 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하르툼 수단 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수단독립 5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호상 이익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1월 1일 평양

리말리츠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원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바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혁명에서 4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자결권과 귀국의 권리, 독립국가창설권을 포함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관대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1월 1일 평양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며 승리의 신심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신 22돐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불패의 보루로 빛내어주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력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길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주제 81(1992)년 1월 3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로를 명시한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임이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리상이고 미개이다. 사회주의의 전진도상에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지만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은 달라질수도 변할수도 없다. 사회주의가 인간의 지향이고 의지인것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역사의 필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을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양양한 전도를 확인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주의 기치높이 백승을 펼쳐나가는 무적의 성세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온갖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그러므로 절절한 자주정신을 지니고 자주의 원칙을 고수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승려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근본문제로 나타난다. 자주성의 원칙을 펴버리고 남의 식, 남의 품을 따르게 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리게 된다. 그러하여 사회주의운동력사가 나타낸 심각한 교훈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과 수령이 펼쳐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역센 기상은 오늘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우리 조국이 지닌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준엄도,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의 위용도 절절한 자주적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굳센 자주정신으로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소리를 다하고있으며 무슨 문제나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고있다. 미래의 약탈한계에 들어있다. 시대적환경과 혁명투쟁의 조건도 많이 변화했지만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늘도 변함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필승불패의 위력을 펼쳐나가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자주의 길로 드림없이 나아가고있다. 민족자주를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확고한 믿음, 헌번 결심한 문제는 천만시원이 막아나서도 끄떡없이 밀고나가는 드센 배짱,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는 대담한 공격정신,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 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누구도 범할수없고 견드릴수도 없는 영원한 자주의 성세로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보루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 수령과 인민의 땀겨울 땀수 없는 혈연적유대에서 승승장구하여온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인민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승고한 동지적 사랑과 헌신으로 온 사회를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민시키신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의 자국은 선군

리 강 철

절세위인의 따뜻한 축복속에 온 나라에 넘치는 환희와 랑만

어디가나 행복의 웃음꽃 바다

새해가 밝아온 이 땅에 기쁨과 환희, 희열과 랑만이 한껏 넘쳐난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마다 명절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의 물결이 가득히 넘쳐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서 제일 기쁘고 자랑스럽게 이 땅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어떻게 밝아왔는가.

주제 103(2014)년 1월 1일 0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총천연 화광이 내 조국의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수도의 곳곳마다에서 명절의 한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격정의 환호소리, 감격의 만세소리가 하늘을 진감시켰다.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커다란 포부와 신심, 락판과 확신속에 맞이하는 새해에서 경축의 축포를 바라보는 천만민중의 심정이 그러도 뜨겁고 환희로운것 아니던가.

터져오르는 축포의 제광에 휩

싸여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한없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끝없이 흐르고있었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절절한 그리움과 호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적인 모습, 이렇게 밝아온 새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시는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더욱 뜻깊고 즐겁게 흐르고있다.

다채로운 명절맞이풍경, 흥성이는 명절분위기로 온 나라가 들쭉거리고있다.

평양과 지방의 극장, 문화회관에서 경축공연무대가 펼쳐졌다.

동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정양교예극장 등 수도의 여러 극장들과 함흥대극장을 비롯한 지방의 극장,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경축공연은 원대한 포부와 최후승리를 위한 확신을 안고 명절을 즐기는 우리 인민에게 새 힘과 용기,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었다.

전국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웃음꽃이 연피어기, 제기차기를 비롯하여 민속놀이를 진행하며 새해의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보다 밝고 창창할 내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듯 《강성조선》, 《사회주의문명》, 《행복》이라는 글씨가 씌어진 각종 각색의 연등이 밝고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날아오른다.

전국의 금양봉사망들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즐겁고 가슴속으로 울려나온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꽃피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수도 시민들이 명절을 더 즐겁게 쇠도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에도 시안의 여러 금양봉사망들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색있는 명절음식봉사를 하도록 하여주시는 조치를 취해 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 주신 은정어린 조치에 접한 우리 봉사망직원들과 금양봉사망의 봉사자들은 손수지는 격정적 감사의 정을 글씨 못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배풀어지는 당의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해 봉사사업을 짜고들어 진행 하고있다.

이들은 당의 은정이 어린 원자재를 가지고 여러가지 특색있는 로리와 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하기 위해 집체적지혜를 합쳐 가며 애고있다.

지금 수도시민들은 청류관, 청류관, 평양면옥을 비롯한 인민봉사총국이며 금양봉사망들마다에서 평고국수, 고기쟁반국수, 노루불고기와 함께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명절음식인 여러가지 맛좋은 영양가높은 민속음식들을 봉사받으며 명절을 보다 즐겁고 뜻깊게 쇠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적 시고있다.

수도 평양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금양봉사망들에서도 민중적정취가 넘치고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여러가지 민속음식들을 가지고 명절봉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온 나라 도처에 마련된 문화정서생활기들과 체육시설들도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세계적수준의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블라인드인유원지의 블라공예가관을 비롯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수도의 대중봉사기지들은 물론 도소재지와 시, 군들에 꾸려진 공원과 유원지, 로라스케트장마당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즐거운 노래소리, 유쾌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있다.

명절의 밤은 반대로 이채로웠다.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 펼쳐진 화려한 불야경과 갖가지 축등과 장식물들로 단장되고 불꽃은 창가마다에 행복이 한껏 무르익는 거리와 마을을... 명절의 한밤이 깊어갈수록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흥의 정으로 잠 못 드는 우리 인민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새해에도 더 많은 일을 하여 강성부흥의 휘황한 락을 앞당겨올 불타는 맹세와 각오, 아름다운 생활의 랑만을 안고 새해가 밝아온 이 땅에 즐겁고 보람찬 명절의 나날이 뜻 깊게 흘러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남호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파사로운 은정속에 각지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명절을 즐겁게 쇠고있다.

수도 평양과 지방의 금양봉사망들에서는 특색있는 명절봉사로 새해를 맞은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어 마련해주신 선물들인 밀떡들이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있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기에서는 밀떡과 파배기, 군반, 군고구마, 송사탕, 차 등 여러가지 봉사물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지방의 금양봉사망에서도 인민들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있다.

경양각을 비롯한 사리원시의 금양봉사망들에서는 평고국수와 평고이온반을 비롯한

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인민봉사총국이며 식당들에서 다채로운 명절봉사를 진행하고있다.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옥류관에서는 칠갑상어로리, 자라로리와 같은 고급로리와 평고국수와 고기쟁반국수, 신선로를 비롯한 각종 음식들을 봉사하고있다.

보통강반에 일떠선 청류관에서 수도 고기쟁반국수와 노루불고기, 메기탕, 떡, 지집, 국밥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봉사하고있다.

창광음식점거리의 식당들에서는 평고국수와 고기쟁반국수, 타조불고기, 전골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봉사하고있으며 평양면옥과 만경대천식당을 비롯한 수도의 곳곳에 있는 금양봉사망들에서도 갖가지 음식들을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

수도의 야외매대들도 련일 흥성이고있다.

여기에서는 밀떡과 파배기, 군반, 군고구마, 송사탕, 차 등 여러가지 봉사물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지방의 금양봉사망에서도 인민들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있다.

경양각을 비롯한 사리원시의 금양봉사망들에서는 평고국수와 평고이온반을 비롯한

특색있는 음식을 봉사하여 명절분위기를 돋구어주고있으며 회평판과 내포국집, 토끼고기 전문식당, 강냉이전문식당, 짜장면집, 전골집, 온반집을 비롯한 회평시의 금양봉사망들에서도 다채로운 명절음식봉사를 진행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평성면옥과 은덕메밀국수집, 역전제거리식당, 문덕특산물식당, 신양특산물식당을 비롯한 평성시의 금양봉사망들에서도 성의있는 명절봉사로 근로자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의 북편 쉼의 도시와 동해안의 공업도시, 항구문화도시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도시와 마을마다에서 성의있는 명절음식봉사로 인민들의 기쁨이 끝없이 꽃피고있다.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은정이 어린 봉사를 받으며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친근한 아버지로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다스린 가슴깊이 감하고있으며 부강조선건설을 위한 새해의 보람찬 전진에서 또다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갈 굳은 결의로 총망되어 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추추추

흥겨운 민속놀이로 새해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모란봉극장에서— 본사기자 리진혁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찬란한 역사를 이겨내며 당을 총지휘해 받아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를 굽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지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꽃피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수도 시민들이 명절을 더 즐겁게 쇠도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에도 시안의 여러 금양봉사망들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색있는 명절음식봉사를 하도록 하여주시는 조치를 취해 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 주신 은정어린 조치에 접한 우리 봉사망직원들과 금양봉사망의 봉사자들은 손수지는 격정적 감사의 정을 글씨 못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배풀어지는 당의 사랑이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대동강구역 청류2동 24 인민반에 사는 영예군인 최재식동무의 집으로 이른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녀의 소행이 전해질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던가. 매해 명절때는 물론 매달이 문두드리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고 영예군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진심 목소리가 마음을 후텁게 해주곤 했다.

지나해 리영숙동무가 뜻하지 않은 일로 몸을 상했을 때에도 이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70여 일동안 친혈육처럼 정성을 기울인 그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에 대하여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최재식동무의 집으로 들어서시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소년과외교양지도자 김태룡동무와 그의 아내,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교장 최희순, 서성구역 삼신초학교 교원 김옥순, 문수구역 김영실, 위경숙동무들과 대동강구역인민보안서 아메단위 일군인 김명성동무 비롯한 인민보안원들, 인민부부 아메단위 일군인 홍성숙동무와 종업원들... 그들의 모습에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품모가 아름답게 비껴갔다.

창문밖에는 정초의 추위가 감돌지만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이 화북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이 땅의 집집마다에선 이렇듯 기쁨과 행복의 웃음꽃이 불날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다채로운 명절봉사를

다채로운 명절봉사를

다채로운 명절봉사를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사회적대가정은 수령과 혈연적으로 결합되어 영웅을 같이하는 가장 화목하고 단합된 혁명적인 대가정이며 혁명적대가정의 매성원들은 수령의 참된 아들딸들입니다.』

새해의 아침 우리는 창천거리의 만수동 1인민반 3층 1호에서 사는 심동수 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집주인들인 심동수, 한은순 부부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명절을 함께 쇠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자가 찾아오니 그럴만도 하였다. 새해를 맞으며 집안의 웃사람들은 물론 마을의 웃이른들, 스승들을 찾아 새해를 하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적 습관이었다. 그러나 새해의 아침 심동수동무의 집을 찾은것은 제자충원이 아니었다.

우리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더니 이웃들이 들어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에서 명절을 쇠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알고보니 그들은 지난해 양력명절도 이 가정에서 보내며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우리 집에서 명절을 함께 쇠고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한식술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집은 모두의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하는 심혜영동무의 말이 더 마음에 들었다.

알고보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심동수동무의 가정에서는 경사에 경사가 겹쳐졌다.

심동수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받은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으로 손주들이 태어나면 주라고 이르시며 안겨주신 《세계명작동화집》의 주인들이 태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심동수, 한은순 부부는 수많은 제자들을 훌륭히 키우 사회에 안겨주신 이대 동맹원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방에 들어왔다. 그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에서 명절을 쇠고싶어 찾아온 것이었다.

불현듯 심혜영동무가 하던 말이 들려왔다.

『맞습니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고향에도 그 품에 안기고싶어하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에서도 가슴후텁게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이 가정뿐이라. 온 나라 가정들에 이렇듯 절절한 그리움이 넘쳐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편 우리 인민의 생활은 올해에도 얼마나 번창하고 아름다울것인가.

본사기자 리경일

보통강반에 꽃피는 기쁨

류관에서

『해마다 새해를 맞으며 보게 되는 풍경이지만 이렇게 흥겹게 데워 주어주시었다.』

날로 더해만지는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지금 청류관의 대중봉사망과 수심사의 식사실마다에서 인민들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있다. 기사가 한 우리를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였다.

아름다운 꽃무늬들이 새겨진 벽체장식과 천정장식, 자개박이 훑힐바람 등 하나하나가 다 정교한 예술작품처럼 안겨오는 그 방에서는 한식술인듯싶은 사람

들이 전골이며 평고국수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민속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활짝 피우고있었다. 그 방안이 아니었다. 옛날 궁중음식의 하나로 왕들만이 먹었다던 신선로며 노루불고기, 메기탕, 고기쟁반국수를 봉사하는 여러 식사실들마다에서 명절을 즐겁게 쇠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청류관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을 사랑과 은정으로 뜨겁고 누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벽한 사회주의 우리 생활의 일탄이었다. 그 행복, 그 기쁨은 나날이 커만 커만 가라는 확신속에 인민의 밝은 웃음소리를 뒤에 남기며 우리는 청류관을 떠났다.

본사기자

『새해를 축하합니다!』

비록 축하의 인사는 길지 않아도 거기에는 우리 사회에 흐르는 따뜻한 정, 생활의 아름다움 향기가 가득히 넘쳐난다.

명도자의 두리에 한마음뿐으로 굳게 물쳐 조국의 부강헌영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 부리가 되려는 굳은 각오가 뜨겁게 불타오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보금자리의 평양기계대학 교원 심동수 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녀의 소행이 전해질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던가. 매해 명절때는 물론 매달이 문두드리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고 영예군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진심 목소리가 마음을 후텁게 해주곤 했다.

지나해 리영숙동무가 뜻하지 않은 일로 몸을 상했을 때에도 이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70여 일동안 친혈육처럼 정성을 기울인 그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에 대하여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최재식동무의 집으로 들어서시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소년과외교양지도자 김태룡동무와 그의 아내,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교장 최희순, 서성구역 삼신초학교 교원 김옥순, 문수구역 김영실, 위경숙동무들과 대동강구역인민보안서 아메단위 일군인 김명성동무 비롯한 인민보안원들, 인민부부 아메단위 일군인 홍성숙동무와 종업원들... 그들의 모습에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품모가 아름답게 비껴갔다.

창문밖에는 정초의 추위가 감돌지만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이 화북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이 땅의 집집마다에선 이렇듯 기쁨과 행복의 웃음꽃이 불날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우리 당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속에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새해에도 평양참판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이며 태양민족의 만년제보인 국가선물관을 참관하였다.

총서관에 들어선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그들은 혁명의 대성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 해외동포들, 남녘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이 어려웠던 선물들을 감동속에 돌아보며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증오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사회주의수호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

인들의 공원을 관람하고 어머니의 은정속에 건설된 인민아와 방상장에서 스키에트를 타며 명절을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오늘의 행복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포구마다에 만민의 배고픔소리를 높이 울려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전시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전시회 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하바롭스크시시행정부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하바롭스크시 시장 아. 엔. 소폴로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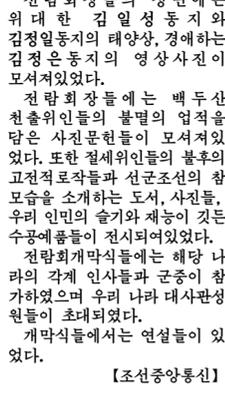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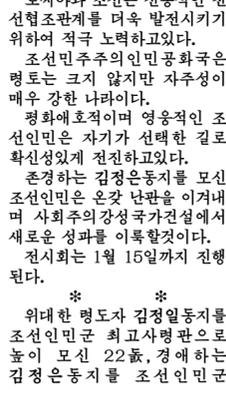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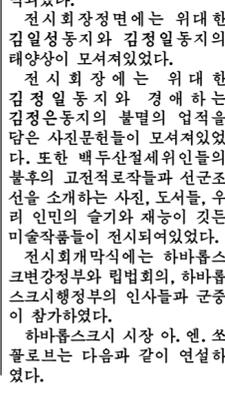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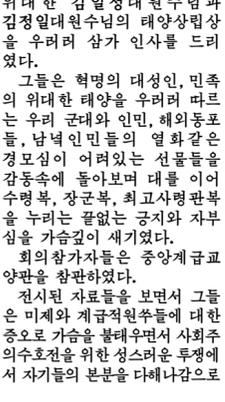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김유철동무와 대동강구역 동문1동 65인민반 김성일동무가 최재식동무와 그의 아내 리영숙동무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손공급과 기라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대동강구역 청류교공중학교 정경순교원과 학생들의 최고는 노래소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군다. 보건성 아메단위 일군인 신현철동무와 삼십성 부원 임정선, 농업성의 김성민, 조경은, 홍정숙동무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최재식동무의 얼굴에도 환희와 신심이 어려졌다.

친혈육과도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영예대원부부의 눈가에 뜨거우게 고여오른다.

20여년전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한 기특한 처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 공연 관람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비약하는 조선

로씨야신문 《빠뜨리오프》 제 1-2호는 1면에 《김정은기치 밑에 주체 101년》이라는 표제 밑에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달며를 보시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특집을 하였다.

신문은 1면과 8-12면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주체 101년과 102년에 진행하신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문헌을 월별로 모시고 로씨야작가동맹 성원인 웨. 사르코브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심, 놀라움, 경탄, 이것이 진보적인 사회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성의 하늘에 새로운 정치적인 별로 우뚝 솟아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해 내린 평가와 감정을 함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조선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뜻밖인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서거이후 10여일간에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고 하는 인터넷트립닷컴에서 인기있는 미국의 구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존함이 무려 6740만건이나 올랐다. 그것도 영어해브싸이 의지적인 장악된 것이다.

수저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행성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세계문제를 대하는 라침판의 바늘이 순간적으로 조선반도에 쏠려 비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시하고있는 정책이 전체 인류의 관심을 끌었

을뿐 아니라 세계정치가들을 각성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크 것이다. 권위있다고 하는 언론기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자 김정은 《현대 10대명인》의 첫자리에 올렸다.

김정은동지를 처음으로 TV를 통해 본 사람들은 그이에 대해 《한없이 겸손하고 인자하신분》, 《정말로 따뜻한 정을 품고 계시는 분》, 《세실하고 너그러운 신분》, 《위풍이 넘치고 친절하신분》, 《은 세계를 휘감고 있는 커다란 건인력파 너그움을 지니신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심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언제나 적대적으로 대하던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조선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수평적인 찬양 100통 격조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은 젊음으로 약속하는 새 지도부의 령도력을 파시하는 것이라고 평하였다.

신문은 《혁명의 조종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주체 101(2012)년 새해 첫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령도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설적인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 류경수제 105항공사단을 방문하시었다. 방문은 위대한 수령들의 혁명사상을 변함없이 계승하시려는 그의 선서와도 같았을 것이다.

신문은 《선군의 마를 줄 모르는 원천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종훈7연대 장교를 주시라고 하는 정적이 전체 인류의 관심을 끌었

로씨야신문 《빠뜨리오프》에 실린 글

어 오종훈7연대장교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354군부대와 조선인민군 제3870군부대 등을 시찰하시었다.

이와 같이 선군정치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은 언제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신문은 《만경대혁명학원에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명회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끝없는 대를, 핵심부대를 키우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만경대혁명학원의 임무는 매우 무겁다고 평하였다.

신문은 《혁명의 조종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주체 101(2012)년 새해 첫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령도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설적인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 류경수제 105항공사단을 방문하시었다. 방문은 위대한 수령들의 혁명사상을 변함없이 계승하시려는 그의 선서와도 같았을 것이다.

신문은 《선군의 마를 줄 모르는 원천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종훈7연대 장교를 주시라고 하는 정적이 전체 인류의 관심을 끌었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비난

베냐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소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미국의 부당한 적대시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최근 미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기로 한데 대해 폭로하고 미국의 지배대세가 불리바르혁명을 파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신문은 《어는 거리에서 명철을 갖기하고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의 평양은 거대한 건설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마치 판야아사들이 서로 물러들어 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기초를 파고있는 집이 있으면 다른쪽에서는 준공된 건물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행복을 넘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어린이들과 계속호호하기를 맞이하고있고 있으며 종향적인 휴식장소들이 편이여 문을

신문은 《어는 거리에서 명철을 갖기하고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의 평양은 거대한 건설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마치 판야아사들이 서로 물러들어 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기초를 파고있는 집이 있으면 다른쪽에서는 준공된 건물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행복을 넘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어린이들과 계속호호하기를 맞이하고있고 있으며 종향적인 휴식장소들이 편이여 문을

신문은 《어는 거리에서 명철을 갖기하고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의 평양은 거대한 건설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마치 판야아사들이 서로 물러들어 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기초를 파고있는 집이 있으면 다른쪽에서는 준공된 건물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행복을 넘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어린이들과 계속호호하기를 맞이하고있고 있으며 종향적인 휴식장소들이 편이여 문을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는 희유금속문제

이국히 부족한 일본은 니켈, 망간, 티탄 등 희유금속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월코람, 백금, 인듐 등도 수입하고 있다.

희토류금속을 비롯한 희유금속은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희토류금속을 개발,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희토류금속을 개발,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희토류금속을 개발,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희토류금속을 개발,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희토류금속을 개발,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희토류금속을 개발,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준비증강책동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일본각료회의에서 2014년도 방위관련 예산을 4조 8848억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2013년도에 비해 2.8% 더 많은 것으로 올해 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속 2년째 증가하는 것으로 된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경제 침체

일본에서 지난해 11월에 상품 무역적자가 1조 2900억에 달하여 연속 17개월째 적자 기록하였다. 이 나라 재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에스빠냐통계국은 얼마전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10월에 전국적으로 실업률 11%가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이칠랜드에서는 지난해 10월에 공장에서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시기에 와서 희토류금속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가격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이 밖에 할당량을 더 낮추었던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희토류수출제한과 관련된 기소를 지지하면서 중국의 희토류수출할당량이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커다란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이에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이 밖에 할당량을 더 낮추었던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희토류수출제한과 관련된 기소를 지지하면서 중국의 희토류수출할당량이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커다란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이에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이 밖에 할당량을 더 낮추었던 것이다.

폭풍 피해

유럽나라들에서 최근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영국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고 약 20만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서 철차와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아일랜드에서는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1만 7500세대가 추위에 떨고있다 한다.

프랑스에서는 건물들이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나고 전력망이 마비되어 약 24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며 약 44개 지역이 경제체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건물들이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나고 전력망이 마비되어 약 24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며 약 44개 지역이 경제체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건물들이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나고 전력망이 마비되어 약 24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였다.

특색있게 꾸려진 미립승마구락부

중국 신문의 글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2012년 11월 훈련장을 시찰하시면서 이곳을 승마구락부로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인민들에게 안락하게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승마는 사람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대단히 좋은 운동이며 말타기를 많이 하면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는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을 소유할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바로부터 조선인민은 말타기를 무척 좋아하고 말을 타고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자주 진행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승마구락부가 훌륭히 개건되면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찾아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승마운동을 하는 과정에 정신육체적으로 단련될뿐 아니라 생의 희열을 더한층 느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건설현장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완전무결하게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건설이 힘차게 벌어져 미립승마구락부가 준공되었다.

같은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꾸려진 미립승마구락부의 규모와 운영방식 등을 펼쳐보고 이곳이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인민의 휴식처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인들속에서 최근 수상 아베가 야스구니전자를 참배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7.1%가 아베의 전자참배를 부정적인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비난

베냐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소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미국의 부당한 적대시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최근 미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기로 한데 대해 폭로하고 미국의 지배대세가 불리바르혁명을 파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신문은 《어는 거리에서 명철을 갖기하고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의 평양은 거대한 건설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마치 판야아사들이 서로 물러들어 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기초를 파고있는 집이 있으면 다른쪽에서는 준공된 건물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행복을 넘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어린이들과 계속호호하기를 맞이하고있고 있으며 종향적인 휴식장소들이 편이여 문을

신문은 《어는 거리에서 명철을 갖기하고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의 평양은 거대한 건설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마치 판야아사들이 서로 물러들어 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기초를 파고있는 집이 있으면 다른쪽에서는 준공된 건물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행복을 넘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어린이들과 계속호호하기를 맞이하고있고 있으며 종향적인 휴식장소들이 편이여 문을

신문은 《어는 거리에서 명철을 갖기하고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의 평양은 거대한 건설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마치 판야아사들이 서로 물러들어 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기초를 파고있는 집이 있으면 다른쪽에서는 준공된 건물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행복을 넘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어린이들과 계속호호하기를 맞이하고있고 있으며 종향적인 휴식장소들이 편이여 문을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할데 대해 강조

브라질대통령 딜마 바나 로우세프가 얼마전 미니스 케리시의 주를 돌아보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가 자연재해를 미리 막을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세울것을 요청하고 하면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서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 규탄

파키스탄의 무성이 지난해 1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북부 와지리스탄지역에서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은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파키스탄의 주권과 영토안정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로 략인하였다.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파키스탄정부의 노력에 저해를 주는 무인기공습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탄도미싸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얼마전 오리싸주 앞 바다에 있는 기지에서 핵을 탑재할수 있는 극초음속 《아그니-3》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미싸일은 벵갈만에 있는 지정된 목표물을 명중하였다.

사거리가 3000여km이고 벵무우에서 기동하게 되어있는 이 지대지미싸일은 나라의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수 있다고 한다.

경제 침체

일본에서 지난해 11월에 상품 무역적자가 1조 2900억에 달하여 연속 17개월째 적자 기록하였다. 이 나라 재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에스빠냐통계국은 얼마전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10월에 전국적으로 실업률 11%가 넘는다고 밝혔다.

한시기에 와서 희토류금속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가격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이 밖에 할당량을 더 낮추었던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희토류수출제한과 관련된 기소를 지지하면서 중국의 희토류수출할당량이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커다란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이에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이 밖에 할당량을 더 낮추었던 것이다.

일본의 준비증강책동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증강책동에 발판으로 매여달리고있다.

폭풍 피해

유럽나라들에서 최근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영국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고 약 20만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서 철차와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아일랜드에서는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1만 7500세대가 추위에 떨고있다 한다.

프랑스에서는 건물들이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나고 전력망이 마비되어 약 24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며 약 44개 지역이 경제체계에 들어갔다고 한다.